깜깜이 후보들 깜짝 공천…"아직도 호남 1당 시절인 줄 아나"

더민주 잇단 전략공천에 일부 반발

강기정, 북갑 시·구의원들
"지역민심 외면 중앙당 오만"
신인 일색 본선 경쟁력 주목

야권 심장부인 광주에서 국민의당과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지역 일부 선거구에 잇따라 '깜짝 공천카드'를 내놓으면서 본선 경쟁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4·13 총선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뒤늦게 낯선 신인들을 대거 전략공천으로 투입하자 "아직까지 광주지역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호남 제1당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선거구에선 지방의원과 당원들이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더민주 후보들이 본선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더민주는 지난 18일 동남갑에 최진 후보, 동남을 이병훈 후보, 북구갑 정준호 후보를 확정·발표했다. 광산을 이용섭 후보와 서구을 양향자 후보는 일찌감치 단수 또는 전략 공천됐다.

광주지역 8개 선거구 가운데 3개 선거구는 전략공천을 한 셈이다. 단수 공천을 받은 이용섭 후보까지 포함하면 4개 선거구다.

이 가운데 강기정 의원의 공천배제와 함께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되면서 관심을 끈 북구갑의 정준호 후보는 '37세 변호사' 외에는 지역민에게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최진 후보도 최성 고양시장의 형이자 대통령 국정홍보비서실장을 거쳤지만, 본인이 전면에 나서서 정치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활동 등 경력이 부족한데다 이름조차 생소한 후보를 전략공천한 것은 중앙당이 '쇄신'에만 방점을 찍었거나, 또는 선거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구갑을 물려주게 된 강기정 의원은 트위터에서 "제 지역구에 정준호 변호사가 전략공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단 한 번도 제 의견은 묻지 않았고 발표 직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털어놨다. 강 의원은 "여전히 당은 저와 우리 당원, 광주시민의 자존심은 안중에 없는 듯 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는 당원과 지역민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전략공천을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갑 지역 시·구 의원 10명도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원, 광주, 지역민을 버린 중앙당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정당별 지역 전체 라인업이 정당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민주로서는 신예 후보들의 인지도 끌어올리기가 표심 확보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광주에 야권 양강구도가 굳어지면서 유례없는 인물경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지만, 더민주의 경우 지역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전략공천으로 또 한번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민주는 광주 현역의원들이 전멸하면서 원외 인사로만 '텃밭 싸움'을 벌이게 됐다. 8개 선거구 가운데 6곳 의원들이 국민의당에 합류한 가운데 강기정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됐으며, 박혜자 의원은 경선에서 송갑석 후보에게 패해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투표 꼭 하세요"…선거 패션쇼

20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롯데쇼핑 월드컵점 앞에서 광주시선관위가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선거 패션쇼를 개최했다. 모델들이 선거정보를 표현한 의상을 입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민의당 서구갑 '신인 가산점' 적용 논란

송기석 "정용화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경력"…재심 신청
김하중 북구을 경선 철회 "천정배와 서구을 경선" 주장

국민의당 서구갑 후보 경선을 통과한 정용화 후보의 '정치 신인' 가점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선에서 탈락한 송기석 예비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고 광주시민과 서구갑 유권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송 예비후보 측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전날 치러진 서갑 경선에서는 숙의배심(70%), 여론조사(30%) 합산결과 정 후보가 41.3%의 지지를 얻어 송 후보(38.6%)와 이건태(20.0%) 후보를 제쳤다. 선관위는 세 후보 모두 정치신인으로 간주해 가점 없이 평가했다. 이와 관련, 송 후보는 정 후보가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서갑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을 맡은 바 있어 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정 후보를 뺀 2명에게만 정치신인 가점(개인 득표의 20%)을 줬다면 송 후보는 38.6%에서 46.3%로 득표율이 올라가 정용화 후보(41.3%)를 앞선다고 송 후보 측은 주장했다.

국민의당 공직후보자추천 시행세칙에 따르면 정치신인은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해당 선거구가 포함된 시·도의 기초단체장, 교육감, 차관급 이상 공무원(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포함), 해당 선거구가 포함된 시·도의 정당 지역위원장 등이 아닌 사람이다.

송 후보는 "중앙당 선관위는 정 후보가 정치신인이 아닌데도 20%의 가점을 준 오류로 1등과 2등이 뒤바뀌는 일이 생겼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 서구을에 공천 신청을 했던 김하중 예비후보가 단수 후보로 공천된 천정배 당 대표와의 경선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는 애초 서구을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당이 천정배 공동대표를 단수 공천하면서 북구을로 지역구 이동을 결정했다. 김 후보는 당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북구을 출마선언을 했다. 그러나 이날 숙의배심원제 100%에서 숙의배심(70%), 여론조사(30%) 합산으로 선거구 경선 규칙이 바뀌자 반발해 북구을 경선 철회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애초 서구을에서 북구을로 가라고 해서 당의 명령을 따를 계획이었지만, 경선 등록 이후 곧바로 룰을 바꾸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렇다면 굳이 북구을로 갈 필요없이 서구을에서 끝까지 경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중앙당과 천 대표를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산업단지 많은 광산구 발전방안은" 배심원 55명 지역현안 질문 쏟아내

국민의당 광주 광산을 숙의배심원 경선 현장 가보니

가능성·한계 확인 공천실험
선거구별 배심원 3배 差
후보 '조직 동원' 의혹도

국민의당 숙의배심원단 경선 사흘째인 20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회의실에선 권은희 의원이 "50년 만에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성사시켰다"며 정견발표에 나섰다.

이날 광산을 숙의배심원단 경선엔 권은희·최선욱·고원 예비후보 3명이 참석했다. 55명의 배심원들은 권 의원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고 후보는 "호남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당은 계파싸움에만 몰두하면서 반성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 현 야권으론 대선 치르기 힘들다. 강한 야당만들어 정권교체 이뤄내 광주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견발표가 끝난 이후 배심원단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배심원단은 지역현안 문제와 당 발전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각 후보자들에게 쏟아냈다.

'광산구에 여러 산업단지가 있는데, 발전방안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고 후보는 "산업구조 변화 속에 산단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정치권과 중앙정부, 지자체가 협력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광주의 광산업에 대해서는 후보 간 전망이 엇갈렸다. "긍정적·부정적 전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최선욱 후보는 "광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 광산업은 지자체 주도로 이어져야 하는데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숙의배심원단 경선은 3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경선은 당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들이 배심원으로 선발된 이들 앞에서 토론을 벌이는 제도다. 한 선거구당 100여명의 배심원이 질의응답 및 집단토의 등 숙의과정을 거쳐 후보자를 평가한 후 비밀투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광주에 의욕적으로 도입한 숙의배심원단 경선에서 지역구마다 배심원 수가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광산을에선 배심원단 참석률이 55%(55명)에 불과해 대표성 논란이 일었고, 오후 열린 동남갑에선 배심원이 170명이 참석해 '고무줄 배심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치른 북갑 경선에는 95명, 서갑 경선에는 85명, 광산갑 경선에는 81명이 참여했다.

선거구별 편차는 후보 측 '조직력'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경선 전 휴대전화로 배심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는 선거사무소마다 '내 사람 심기' 경쟁이 벌어졌다.

배심원 참여 여부를 묻는 전화에 응대하도록 안내하고 참여가 확정되면 연락을 달라는 선거사무소 문자메시지가 대량으로 돌았다. 대다수 유권자가 정치행사 참여에 소극적인 점을 고려하면 조직력이 우세한 후보 측이 지지자들의 참여를 독려해 표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휴일이어서 참석률이 매우 낮은 것 같다"며 "토론을 통해 시민들이 후보를 선정한다는 게 이번 경선의 핵심인만큼 각 후보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의원

레이저 백내장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정확도와 안전성이 현저히 높은 최첨단 프리미엄 백내장 수술입니다. 3D OCT가 탑재된 펨토세컨레이저를 사용해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훨씬 빠르고 오차 없는 수술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無출혈 / 無통증 / 無봉합 / 無입원이 가능하며 검사부터 수술까지 하루에 모든 것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대영21병원 TAEYOUNG 21 HOSPITAL

당뇨병-갑상선 건강강좌

좌장 • 이문규 교수(삼성서울병원, 현 당뇨병학회 이사장)
강사 • 김재현 교수(삼성서울병원, 현 당뇨병학회 총무이사)
강호철 교수(화순전대병원)
김순호 부장(광주기독병원)
김상용 교수(조선대병원, 현 당뇨병학회 수석 부총무)
양태영 원장(태영21병원, 현 당뇨병학회 일차진료 이사)

일시 • 2016년 3월 26일(토) 오후3:30~4:30
장소 • 태영21병원 2층 세미나실
문의 • 062)362-0075(광주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태영21병원 제22회 정기 음악회
3월 18일(금) PM 6:30